



MMA 물량과 잡화꿀이 아카시아 꿀 값에 미치는 영향

조합장 조 상 균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되어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하여 벌꿀은 10년간 높은 관세장벽의 보호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생산량의 3%를 의무적으로 사주고 의무 수입량의 약 10% 씩을 매년 증가하여 사주도록 협상이 되어있어 95년도부터 꿀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매년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

MMA(의무수입량) 물량은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주어야 할 우리 양봉인들의 몫이며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년 이 꿀을 파는데 제때에 팔리지 않다 보니 상당한 애로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MMA물량을 수입권 공매(이 권한을 가지면 어느 꿀이나 가져다 팔수 있는 제도)로 돌리려고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양봉협회나 각 양봉조합에서는 이를 막으려 최대한 노력해 보았지만 지난해 어쩔 수 없이 50%가 수입권 공매로 넘어가 MMA물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수입권 공매로 넘어간 물량이 우리 전 양봉인에게 영향이 미치는 아카시아 꿀이 들어오게 되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양봉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해마다 나뉘는 50%까지 수입권 공매로 넘어가 약 1,000드럼이 아카시아꿀로 수입되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꿀 가격이 10~20만원 정도가 하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를 막는 길은 가급적이면 MMA물량을 우리 스스로 소화해 주는 길 밖에 없는 형편이다. MMA물량이나 수입권 공매나 다 없애는 길은 시장을 완전 개방해서 관세 장벽을 없애면 의무적으로 수입해 올 필요는 없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현재 98년도에 들어온 꿀이 약 400여 드럼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들어와 있는 꿀이 약 565드럼 정도가 남아 있어 이를 소화해 주지 않는다면 수입권 공매로 넘어가게 되고 수입권 공매량은 대부분 고가에 잘 팔릴 수 있는 아카시아꿀로 들어오는 현상

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한번 수입권 공매로 넘어가면 다음해부터는 계속 수입권 공매로 밖에 들어 올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MMA물량은 입찰 시 최저 가격 입찰제이다 보니 가격이 제일 싼 꿀을 들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아카시아 같은 고가의 꿀은 못 들어오고 싼 잡화꿀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의 우수한 잡화꿀 물량은 부족한 편이라서 이쪽에서 소화시키면 얼마든지 이 정도량은 충분한 편이며 양봉인들의 피해는 거의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잡화꿀을 생산하는 양봉인이 이러한 꿀이 많을 경우 잡화꿀 파는데 지장을 받다보니마다 하겠지만 과연 요즘 인위적 잡화꿀 생산업자가 과연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선량한 양봉인들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MMA 물량이 미치는 영향보다도 잡화꿀 생산량이 아카시아 꿀 가격에는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동안의 예로 보아 아직도 시중의 아카시아 포장꿀이 순수한 꿀 보다는 그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잡화꿀을 혼합 판매하여 시중 출하하다 보니 판매업자가 좋은 꿀을 팔기 위하여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아카시아꿀이 안 팔리면 돈이 들지를 않아 어려움이 따르고 가격 또한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 양봉인들이 우리 업계를 내가 생산한 아카시아꿀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팔 건어 부치고 지켜야 할 것이다.

벌을 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양액이 혼합된다던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잡화꿀을 생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겠다.

잡화꿀을 다량 생산하는 사람은 일년에 수천만원의 가의 소득을 올려서 좋을지는 모르나 돈벌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가급적 주지 말아야 되겠고 과연 자기가 생산한 꿀을 자기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먹고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고 양심을 파는 행위는 이제



삼가야 할 때가 되었다.

다량 생산한 잡화꿀 일수록 3~4일만에 채밀하다 보니 색깔이 맑아서 아카시아꿀도 둔갑 판매가 되고 있어 판매업자와 생산업자가 악어와 악어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양봉인이고 자기 호주머니 있는 돈 10만원만 누가 몰래 빼간다고 할 때 아마 가만있는 양봉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곧바로 신고라도 해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카시아꿀을 15드럼 생산하는 양봉인이 이러한 잡화꿀이 다량 생산되어 꿀 가격이 30만원 정도 떨어져 손해를 본다 가정하면 450만원의 내돈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잡화꿀 생산업자를 신고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써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러한 생산자는 낮두껍게 얼마를 생산했다. 얼마 소득을 올렸다 하여 자랑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필자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육규모를 늘리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양꿀 시장만 잡으면 아무리 많은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더라도 소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화 하라고 외치는 것이며 아무리 많이 생산해봤자 팔지 못한다면 어떻게 많이 생산하라고 외칠 수 있겠는가?

요즘은 1인당 사육 봉군수가 많이 증가한 것도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아카시아꿀을 생산해 놓으면 잘 팔리다 보니 욕심이 생겨 사육 봉군수가 늘어 나는 것이다.

인생의 한 평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생활은 약 40년 정도 하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제 세끼 밥을 못먹던 시대는 지났고 어떠한 일을 하던 부지런만 하면 밥 세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꼭 잡화꿀을 생산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때는 한편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목적보다는 잡화꿀 생산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은 부정식품을 만들어 돈을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며 호위호식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데 그 자식이 무엇을 본받겠는가?

이제 지나간 허물을 감추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다 묻어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양봉업계를 떠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양봉조합에서는 작년부터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짜꿀 제조 판매업자를 신고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그동안 약 2,0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고 구속자와 입건자수가 여러 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화를 할 생각이다.

IMF가 오다보니 98년도에는 잡화꿀 생산이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고가에 잘 팔려 올해는 더 많은 양봉인들이 잡화꿀 생산을 하겠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올해는 봄벌 발육은 좀 떨어지지만 그 어느 해 보다도 봉군수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생산량이 어느정 도 될 지는 모르나 잡화꿀 생산이 많아지면 아카시아 꿀 값은 상당히 떨어져 선량한 양봉인들의 소득만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잡화꿀이 범람하는 한 양봉인들의 권위는 실추될 수 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컷 두들겨 맞고 정화되는 현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필히 올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테 인정받고 시는것과 손가락질 받고 시는 것과는 인생의 질이 틀릴 뿐만 아니라 이를 돈으로 정확히 환산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가치로 환산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004년 이후에는 수입 개방이 된다고 하니 그때는 양봉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그 안에 잡화꿀이라도 최대한 생산하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농업이 존재하는 한 양봉업은 영원히 존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양봉업을 충분히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고품질 생산과 밀원 식재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판매 업자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면 그래도 양봉을 했던 하지 않았던 양봉인들보다는 약간 생각하는 것이 앞서있고 경제적으로 낮지 않나 생각되는데 얼마 안 되는 판매업자가 단합이 안되고 업체를 저질 꿀만 팔면서 흐려 간다면 양봉업계의 필요악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리 양봉가가 잡화꿀을 생산해 놓아도 팔아주지 않으면 생산자는 생산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요즘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 오히려 일부 판매업자는 은밀히 생산지한테 부탁하여 잡화꿀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스스로 환골탈퇴하는 자정노력을 가져 주기를 부탁한다.

생산자들 또한 그래도 질 좋은 꿀을 팔려고 노력하는 판매업자에게 꿀을 주도록 하고 잡화꿀만 보급하는 판매업자에게는 가급적 아카시아꿀을 주지 않도록 하여 질 좋은 아카시아꿀 시장을 지켜나가야 2004년 이후 시장 개방이 되었을 때 아카시아꿀 시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용있는 판매업자와 그렇지 않은 판매업자도 스스로 구별하여 올바른 판매업자와 올바른 생산업자가 공생할 수 있을 때 아카시아꿀 가격과 시장이 유지되어 우리양봉업계는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